

라키비움 공간계획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Remodeling Target Institution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최영실 (Youngsil Choi)*

초 록

최근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이용 요구가 복잡화 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내 정보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유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라키비움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 또한 이론적인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관 현황 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방법적으로는 기존 라키비움 공간계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분석 도구로는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계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re are increasing needs for complex information services for user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recently. And the concept of "Larchiveum", merging of func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s suggested in United States and researches associated with this concept are progressed on Korean information science. At present, however, the larchiveum has not been materialized, and hence researches focus on theoretical frameworks.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s plans for an analysis with planning of institutions that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re remodeled into larchiveum. Methodologically, the research processes of existing larchiveum spatial planning are specified. More realistic implementing measures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are suggested through utilization of related law & guidelines as analysis tools.

키워드: 라키비움, 라키비움 리모델링, 라키비움 공간계획, 라키비움 현황 분석
larchiveum, larchiveum spatial planning, remodeling of larchiveum,
analysis of larchiveum

* 브로드콘 에이치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실 실장,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위촉연구원
(choiyoungsil@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2013년 5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13년 6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6월 20일
■ 정보관리학회지, 30(2), 143-167,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2.143]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기관 간 기능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 곳곳에서 정책적으로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영국은 지역 단위의 협력 정책 기구인 MLA(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를 수립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2004년에 캐나다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Canada)과 국립기록관(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의 조직을 병합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를 창설하여 정부 산하 도서관과 기록관의 정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기록학계에서는 2008년에 “라키비움(Kuzyk, 2008)”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문화정보기관을 제시하였고, 이후 국내의 기록관 건립에 관한 연구에서 라키비움을 지향하는 업무와 공간 계획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 현황에 있어서도 라키비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먼저 최근 문화유산기관의 시설 현황을 살펴보자면, 국내 등록된 박물관은 694개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319개에 이르고 있고(문화체

육관광부, 2011a), 전체 박물관 수는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통계청, 2013) 박물관의 시설은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실제 공급되는 서비스와 콘텐츠는 부족하여 난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김기태, 2008; 문화체육관광부, 2011b). 반면 기록관은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하나의 기관도 독립된 시설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기관이 가진 상반된 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역의 문화역사센터의 기능을 병행하는 일종의 ‘복합 문화정보기관’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라키비움이 국내 문화유산기관에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단일 문화유산기관들이 분산 경영해온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집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제적 이용 절감의 효과를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라키비움은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시설 문제와 운영에 대해 대안적인 융합 모델이 될 수 있고, 필요성에 있어서도 진보적이고 우수한 기관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개념에 머무르고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선행 연구들은 라키비움의 기능과 공간을 기획하는 이론적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라키비움으로 리모델링되기 위해 필요한 대상 기관 현황 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단계별 분석 도구로 국내 문화유산기관 관련 지침과 법제를 파악하여, 라키비움 공간기획 방법론의 적용 및 실행 가능성

을 타진하는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라키비움의 공간기획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구상의 한계와 현실화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라키비움 공간기획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라키비움의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대상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유산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재설계하고 라키비움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필요한 지침과 법제 등을 분석하는 단계별 활동 과제를 도출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절차 가운데 건립 대상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는 활동을 정밀화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기관 형태와 상관없이 라키비움으로 조직을 통합 혹은 확장하여 기능을 재설계하고 공간화를 계획하는 기관을 포괄한다. 현황 분석의 절차는 대상 기관의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의 두 영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각각 하위에 세부적인 활동과 분석 도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현황 분석의 세부 절차는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절차에 적용되며,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공간기획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제안된다.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라키비움은 현재까지 실존하는 기관이 아닌, 개

념에 머무르고 있는 복합적인 문화정보기관의 한 유형이다. 또 본 연구가 제안하는 라키비움의 리모델링을 위한 현황 분석의 절차는 박물관 학계에서 진행해온 뮤지엄 플래닝 연구와 기록 학계에서 수행한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라키비움과 공간기획에 대한 개념과 선행 연구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라키비움 관련 선행 연구

라키비움[Larchiveum=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은 2008년 미국 텍사스 대학의 메건 윈젯(Megan Winget)이 처음 제시한 통합형 수집 기관(multidisciplinary collecting institution)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다양한 매체의 정보물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단일 조직을 지칭한다(Kuzyk, 2008). 라키비움은 기존의 문화유산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집약함으로써 경영과 운영의 비용 절감과 이용접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시설과 관련한 문제에도 훌륭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내에서는 라키비움에 관한 연구가 2008년 이후 기록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국외에서는 직접적으로 라키비움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이미 국외 정보학계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대한 통합과 협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라키비움 관련 연구의 태동을 확인할 수 있다.

Rayward(1998)와 Marty(2009)는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인류문명 초기의 문화유산기관이 하나의 기관에서 시작했듯이 다시 디지털 정보를 공통으로 다루게 되면서 통합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에 디지털 융합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Yarrow, Clubb, Draper(2008)와 Zorich, Waibel, Erway(2008)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8년에 미국에서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구현 방법론을 추구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라키비움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에는 병무청(2010)과 조정임(2011) 등에 의해 통합적 정보관리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차츰 기상, 문화예술, 입법기관 등의 대안적인 복합정보기관의 모형에 대한 연구로 수행되었다(기후과학연구단, 2010; 국립예술자료원, 2010; 국회도서관, 201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0). 또한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라키비움의 기능을 실제 기관의 조직과 공간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김유승(2012a/2012b)은 국회 내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국회기록보존소 간 협력의 장애요인과 통합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라키비움 완성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영실(2012a)은 라키비움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공간기능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라키비움의 종합적인 공간 요건으로 도출하였고, 최영실과 이해영(2012)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적 특성과 요건을 분석하여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을 수립하였다.

2.2 문화유산기관의 공간계획 관련 선행 연구

문화유산기관과 관련된 공간계획의 분석틀을 최초로 구안한 이는 Lord와 Lord로, 이들은 1983년 “뮤지엄 플래닝(Manual of Museum Planning)”을 시작으로 박물관 건립 과정을 실무기능 측면에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뮤지엄 플래닝 연구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현황화하여 발전시켰으며, 박물관 운영의 관점에서 박물관 건립의 단계별 활동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였다(Lord & Lord, 2001).

이후 국내에서는 예술경영학 분야를 중심으로 뮤지엄 플래닝을 도입하는 방안 연구가 이어졌다. 신숙영(2001)은 박물관 경영전략 차원에서 뮤지엄 플래닝의 단계별 이행 과제를 제시하여 일종의 박물관 건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박신의(2009)는 국내 박물관 건물이 완공 이후에도 소장품 빈약과 운영 조직 미비로 개관 이후의 운영에 차질이 빚게 되는 문제점의 방안으로 뮤지엄 플래너의 양성과 박물관 건립의 면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지혜(2009)는 국내 상황에 맞는 뮤지엄 플래닝 매뉴얼 구축의 방법론을 수립하였고, 국가 차원의 박물관의 실무 기능에 근거한 건축 기획 절차의 제도 적용을 제안했다.

한편 도서관과 기록관의 실무 기능에 의거한 건축기획의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도서관·기록관의 건축프로그래밍 연구로 진행되었다. 진홍필(2005)은 공공도서관 기본설계 전 단계의 세부 조건으로 도서관 실무 기능과 소장자료 객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건축기획의 의사결정체계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전개 방식을 확장·발전시켜 전홍필(2009)은 기록관리의 업무기능 시스템에 대응하는 아카이브 건축프로그래밍 연구를 이행하였다. 이어 최영실(2012b)은 앞서 뮤지엄 플래닝과 도서관·기록관의 건축프로그래밍의 방법론을 한국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적용하여, 이들 기관들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절차적 방법론을 수립하여 제안하였다.

2.3 이론적 배경 -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개념과 절차

본 연구가 제안하는 라키비움의 리모델링을 위한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은 최영실(2012b)이 수립한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세부 활동을 구성하였다. 라키비움 공간기획은 앞서 살펴본 뮤지엄 플래닝과 도서관·기록관의 건축프로그래밍을 융합하여 라키비움에 적합하게 반영한 것으로, 라키비움의 실무 기능이 요구하는 공간을 계획하는 절차적 방법론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리모델링 현황 분석은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절차에서 “대상 기관 현황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정리를 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라키비움 공간기획은 라키비움의 공간 구축에 필요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각각의 기능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라키비움의 융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기능의 요건을 도출하는 전반 과정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라키비움 기능 이행에 최적화된 공간을 계획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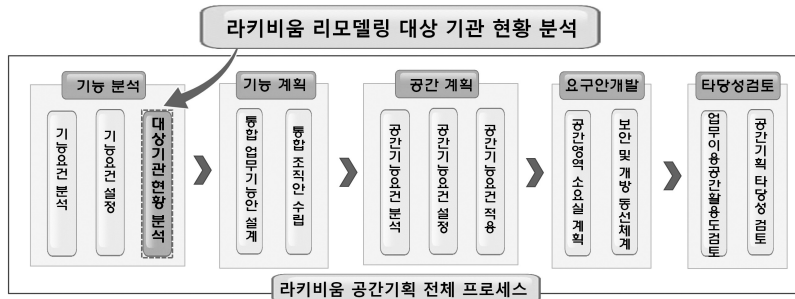
첫 번째 “기능 분석 단계”에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핵심적 고유 기능을 조사하고 이를 라키비움 업무 기능의 요건으로 설정한다. 이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유사한 이용자 서비스 특성을 분석하여 지식정보의 진흥 기능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이용확장서비스 기능을 라키비움 서비스 요건으로 설계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요건에 근거하여,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건립 대상 라키비움의 성향별, 현황별 요구되는 기능 요건을 적용한다.

두 번째 “기능 계획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과 현황 분석을 참고하여 융합 기능을 도출한다. 또 이에 근거한 업무 기능 및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조직인과 업무 분장을 구성한다.

세 번째 “공간 계획 단계”에서는 라키비움의 업무와 서비스에 관련된 공간 기능 요건을 분석·적용하여 공간 요구안을 제시한다. 공간 요구안은 영역별 공간을 세부적으로 도출하여 이에 필요한 공간기능별 요구사항-시설과 관리지침, 법제 요건, 동선 등-까지 매핑한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검토의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공간 기획의 활용도와 적합성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와 서비스 공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체 공간 기획의 단계에 적용하여 공간 기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따라서 ‘기능 분석’ - ‘기능 계획’ - ‘공간 계획’ - ‘타당성 검토’로 전개되는 라키비움의 공간 기획은 기획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절차는 최영실(2012)을 분석틀로 삼았으므로 절차가 완성되는 과정과 단계별 세부 관련 자료는 이 연구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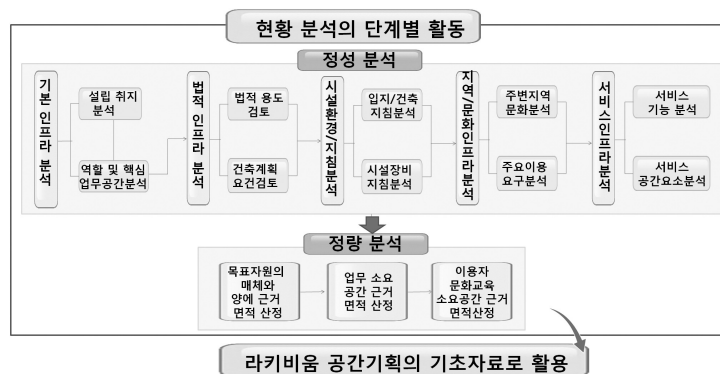
〈그림 1〉 대상 기관 현황 분석 활동과 라키비움 공간기획(최영실, 2012)의 상관도

의 수립 이후 다시 업무 공간과 이용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환류 구조를 가진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라키비움의 리모델링을 위한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은 공간 기획 절차 가운데 첫 번째 “기능 분석 단계”에 해당된다(〈그림 1〉 참조).

3. 라키비움의 리모델링을 위한 단계별 현황 분석

라키비움 리모델링을 위해 대상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는 단계별 절차는 크게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뉜다. 우선 정성 분석에서는 라키비움의 설립 취지, 역할 및 소관 객체 등 기본 인프라를 분석한다. 이어 법적용도, 시설 환경 및 지침, 지역 및 문화 인프라, 기관 홍보 및 확장서비스 인프라를 분석하여, 기존 기관 - 대상 기관의 범주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혹은 유사기관을 모두 포함 - 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요건을 도출한다. 정량 분석에서는 목표 자원 매체와 양, 업무 소요 공간, 이용자 문화교육의 소요 공간 등에 의한 라키비움 전체 면적 산정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단계별 활동 전개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라키비움 리모델링을 위한 대상 기관 현황 분석의 단계별 활동

3.1 정성 분석

정성 분석에서는 대상 라키비움의 '기본 인프라 분석', '법적 인프라 분석', '지역 및 문화 인프라 분석', '서비스 인프라 분석' 등 세부 활동을 진행한다. 단계별 활동과 분석 도구는 다음과 같다.

3.1.1 기본 인프라 분석

언급한 바와 같이 라키비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기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통합하거나 이들 가운데 두 기관을 병합하고 나머지 하나의 기관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기관에 다른 기관의 공간 기능을 덧대어 종전과는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등 여러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경우의 수에도 동일하게 분석해야 할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대상 자원 등 기본적인 인프라다. 이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이행한다.

3.1.1.1 설립 취지 분석

라키비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분석은 추후 전개할 현황 분석 활동의 근간을 이루므로 향후 분석할 대상의 기초 조사도 이 단계에서 함께 수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리모델링 건립 위원회가 주최한 라키비움 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회의록을 조사한다. 또한 리모델링 이전의 기관과 설립 계획 대상인 라키비움의 사명안과 정책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교차 분석하고, 건립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성한다. 이 분석 결과는 라

키비움의 목적과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틀로 사용한다.

3.1.1.2 역할 및 소관 대상 자원 분석 - 핵심 업무기능 공간 요소 추출

라키비움의 역할 분석은 상기 설립 취지 분석의 활동과 소관 자원의 종류·성향을 토대로 한다. 설립 취지 분석에서 획득한 설립위원회의 회의록과 라키비움 사명안 및 정책 관련 자료를 재분석하고 자원의 종류 및 성향과 이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지역문화의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라키비움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 단계의 분석 결과는 라키비움의 조직안과 업무 기능안 수립에 반영되며, 이용자와 문화 환경에 대한 분석은 차후 지역·문화 인프라 분석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한다.

라키비움의 주요 역할을 수립하였다면 공간을 기획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주요 공간 요소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라키비움에 도입할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요 공간 기능과 요소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라키비움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도출하자면 기록관의 기록관리 및 보존 기능과 도서관의 도서 자료 수서·열람 및 검색 기능, 그리고 박물관의 부존과 전시 및 교육 기능 등을 들 수 있다(조정임, 2011). 이 세 기능을 중심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주요 공간 기능과 요소를 설정하면 <표 1>과 같다. 이 공간 요소는 라키비움의 핵심적인 공간 기능을 계획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라키비움이 향토도서관·지역기록관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공간 요소 가운데 도

〈표 1〉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핵심 공간기능과 요소

| | 도서관 | 기록관 | 박물관 |
|---------|---|--|---|
| 주요 핵심기능 | • 도서 수서, 열람·검색 | •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 | • 보존, 전시, 교육 |
| ↓ | | | |
| | 도서관 | 기록관 | 박물관 |
| 주요 공간기능 | • 도서자료 열람 참조 공간기능 • 도서자료 보존기능 • 지식전달·교육기능 | • 기록물관리프로세스 공간동선 • 기록물보존처리 공간기능 • 기록물 보존시설 환경기능 | • 박물관 자원 보존공간기능 • 박물관 자원 전시서비스 공간기능 • 복합문화교육 프로그램 공간기능 |
| ↓ | | | |
| | 도서관 | 기록관 | 박물관 |
| 주요 공간요소 | • [열람·보존] 일반열람실, 특수 매체열람실, 보존서고 • [참조] 참고정보서비스 데스크, 출입구 안내데스크, 대출복사서비스대 • [교육/지식전달] 멀티미디어 정보실, 교육실(강의실), 세미나실 | • [기록관리] 하역장, 입수 등록 정리실, 평가 기술실, 소독 탈산 처리실, 복원 처리실, 스캐닝실, 인코딩실, 마이크로필름제작실, 서지류수장고, 비밀수장고, 디지털수장고 | • [박물관보존] 박물관수장고 • [박물관전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준비실, 기타전시실 • [문화교육] 강당, 대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박물관교육실, 인력개발원, 문화교육실 |

서관과 기록관의 공간 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정보서비스에 대한 특정 공간 요소와 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2 법적 인프라 분석

법적 인프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라키비움의 법적 시설 용도와 건축 계획적 요건으로서의 관련 법규를 살펴본다. 이 두 방향의 분석은 앞서 이행한 대상 라키비움의 기본 인프라 분석에서 도출한 라키비움의 설립 취지와 주요 역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축법상 라키비움을 특정적으로 용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 시설용도 구분은 리모델링 대상 라키비움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한다. 만약 라키비움의 주요 역할을 사립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설정한다면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건립 대상 라키비움이

기념관이나 박물관, 문화예술관, 전시관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해당된다. 기록관은 아직까지 국내 법규상 법적 시설 용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기념관으로 범주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2〉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대한 법적 시설용도와 관련 법규이다. 이 법규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대상 라키비움의 현황에 따른 건축계획적 요건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도록 한다.

3.1.3 시설환경 및 지침 분석

라키비움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요구되는 규정과 지침을 파악하여 차후 시설 환경 기준과 법적 규정 및 내부 지침의 수립에 반영할 자료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유사 복합 문화 시설 등과 관련된 법적·제도적·물리적 기준을 조사하여 대상 기관의 성향에 적합하게 선별한다. 단, 시설 장비와 이용을

〈표 2〉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적용되는 법적 시설용도

| 규정 | 도서관 | 기록관 | 박물관 |
|-------|--|---|---|
| 시설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 공공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 '기록관'²⁾(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및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

위한 규정을 수립할 때에는 조직안과 업무 매뉴얼에 적용되는 관련 지침과 기준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한다. 〈표 3〉은

라키비움의 공간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관련 기준으로, 라키비움 공간기획 시 공간계획 단계의 분석 도구로 활용

〈표 3〉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시설환경 및 지침

| 지침 | 도서관 | 기록관 | 박물관 |
|-------------|---|---|--|
| 입지조건 및 건축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선정: 건축법 • 입지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선정: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 • 보존서고 입지조건: 국제표준 ISO 11799-4(Document Storage Requir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선정: 건축법 • 건축조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별표2] |
| 시설 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 도서관법 제3조 관련 시행령 • 국제표준 ISO 11799 (Document Storage Requirements for Archives and Library Materia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 • 국제표준 ISO 11799 (Document Storage Requirements for Archives and Library Materials) • 미국 NARA 1571 (Archival Storage Standard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별표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 (시설)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 |



라키비움 시설 기준 참고 사항

| 입지선정 | 업무프로세스별 시설장비 | 도서장서 및 시설기준 | 박물관자원 보존처리 시설장비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 - 한국행정학회(200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 - 국제표준 ISO 11799 - 미국 NARA 1571 (Archival Storage Standards) - 전홍필(2010) - 최영실(2012b)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 - 국제표준 ISO 11799-4 - 윤희운(2002) - 한국도서관협회(2009) - 한국도서관협회(2013) - 문화체육관광부(2008) - 도서관 설립·운영전략 매뉴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행정학회(2007) - Ambrose & Paine(2001) - 윤병화(2012) |

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기록관 혹은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의미하므로 이 범주의 기록관에 사립 기록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용할 수 있다.

3.1.4 지역·문화 인프라 분석

이 단계에서는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 가운데 지역적·문화적 이용서비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주요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한다. 더불어 라키비움이 소속된 모기관의 기능, 주요 이용자의 신원, 지역 사회와 단체 등 연계 정보도 함께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민 및 대표 단체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하거나 지역 정보와 지자체 행정자료도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분야 전문 라키비움이라면 전문가 단체의 동의 확보 차원에서 이용요구조사를 시행한다. 예컨대 대학도서관과 기록관을 리모델링하여 라키비움으로 계획한다면 기존 대학 구성원과 대학 밖의 연구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공간 요건을 분석해야 하며, 모기관이 지방 자치 단체라면 지방 주민의 이용 요구를 공간기획 요건에 반영한다. 이 때 대학 주변부에 문화적 기능을 이행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없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이용 요구가 높다고 분석했다면, 지역의 문화기관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간 요건을 부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3.1.5 서비스 인프라 분석

라키비움의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분석하고 공간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문화유산기관의 이용자 서비스의 인프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라키비움의 주요 이용자 요구를 설문조사하거나 문헌정보학계, 기록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로써 라키비움의 이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도구를 탐색하여 이를 수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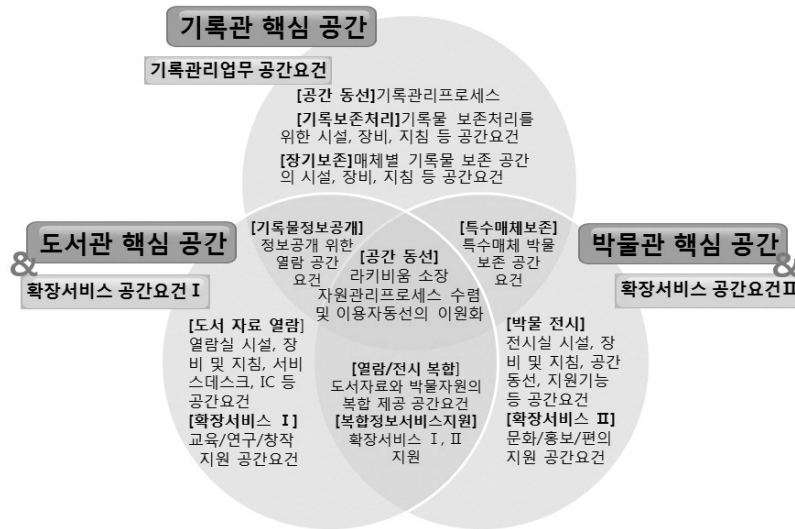
는 공간 요소를 도출한다. 기록학계에서 진행해 온 이용자서비스 연구(장혜란, 이명희, 2008)와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최영실, 2012b)를 분석틀 삼아 이용확장서비스 공간 요소를 도출하는 절차는 다음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먼저 라키비움의 기본 이용 서비스와 이용확장서비스 I, II를 범주화한다. 기본 이용 서비스는 안내, 자원이용, 이용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확장서비스I은 이용자의 교육·연구·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이용확장서비스II는 이용자의 문화적 체험과 편의 및 홍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성한다. 이어 이들 서비스 요건을 수렴하는 라키비움 서비스 공간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앞에서 도출한 라키비움 서비스 유형별 공간 요소는 라키비움의 성향과 이용자 요구 등에 대한 분석에 따라 선별적으로 라키비움 공간 계획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1.6 정성 분석 총괄 - 라키비움 공간 요건 설정

라키비움의 공간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핵심 업무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교차 참고한다. 즉 도서관의 열람과 확장서비스I의 교육·연구·창작 지원의 공간 요건,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동선과 보존처리 공간 요건, 박물관의 박물관 전시와 확장서비스II의 문화·홍보·편의 지원의 공간 요건을 수렴하여, 라키비움의 핵심 공간 요건과 서비스 공간 요건을 총괄한다(<그림 3> 참조). 실제 리모델링 시에는 대상 라키비움의 성향에 따라 <그림 3>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대상 라키비

〈표 4〉 라키비움 서비스의 유형과 공간 요소

| 서비스 유형 | | 물리적 서비스 내용 | 공간 요소 | |
|---------------------|------------|-------------------|--|--|
| 이용서비스 | 안내 | 서비스 규정 | 팸플릿, 브로셔 | |
| | | 안내서비스 | 라키비움 정보 안내 | • 안내소(공간별 안내데스크), 매표소, 홍보관, 정보광장, 고객정보센터, 다국어정보실 |
| | 자원 이용 | 자원 안내 | 팸플릿, 브로셔 | |
| | | 검색 | 생산(이관)문서목록 소장 자원 목록 제공 | • (학술정보)검색대 |
| | | 열람 | 방문 열람(문서 및 도서자료) | •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정보)열람실, 비공개열람실, 오픈라이브러리카페, 어린이도서관, 장애인열람실, 어르신정보실, 향토정보실 |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운영 | • 정보공개청구실 |
| | | 복사 | 복사 | • 복사실 |
| | | 대출 | 대출/상호대차 신청 | • 대출실(서비스 창구), 무인자동대출반납대 |
| | | 참고서비스 | 대면 서비스 | • IC(Information Commons), 참고정보서비스 데스크 |
| | 전시 | 방문 박물관 전시 서비스 도슨트 |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 준비실, 콘텐츠 전시관, 기증자컬렉션룸, 기타 전시실 | |
| 이용 교육 | 이용 교육 및 견학 | 이용자 교육 및 견학 | • 멀티미디어이용교육실, 커뮤니티교육실, 러닝센터 | |
| 확장서비스 I (교육·연구·창작) | 전문가 양성·교육 | 기록관리교육 | 기록물관리자 전문가 과정 | • 아키비스트교육실 |
| | | 사서교육 | 사서 전문가 과정 | • 사서교육실 |
| | | 학예사교육 | 박물관 조사·연구, 박물관 보존 처리 및 전시 전문가 과정 | • 학예사교육실 • 연수실, 전문인력개발원, 직원교육장 |
| | 일반 교육 | 강좌 | 강좌, 강좌실 제공 | • 강의실(교육실), 강당 |
| | | 세미나 | 세미나, 세미나실 제공 | • 세미나실 |
| | 교육 지원 | 교수 지원 | 교수안 제작, 교수 지원 | • 교육지원실, 교수연수실(대학기관) |
| | | 출판 | 학습매체 제작 제공 | • [A]제본실, 인쇄실(관의 기관협업권장) |
| | 연구 | 연구 | 관련 연구, 서비스개발 연구 | • 연구실, 멀티미디어연구실, 보존처리연구실, 실습실, 연구협업부스, 학예연구실, 객원연구실, 실험실, 지역 문화연구실, 직원용 정보실, 개인연구실, 유물감정실 |
| | 창작 | 창작/지원 | 콘텐츠 개발 및 생산 지원 | • 제작실, 멀티미디어제작스튜디오, UCC스튜디오, 창작커뮤니티실, 매체편집실 |
| | 연구관련출판 | 출판 | 연구보고서 출판 | • [A]와 상동 |
| 확장서비스 II (문화·홍보·편의) | 홍보 지원 | 홍보관련출판 | 팸플릿, 브로셔, 홍보자료 출판 | • [A]와 상동 |
| | | 회원 관리 | 회원 관리, 레터 발송 | • 홍보지원실, 회원관리실, 상담실 |
| | 문화·예술 | 문화 체험 | 영상물 상영, 연극·음악회 등 공연, 이용자 참여 문화행사 | • 극장, DVD소극장, 공연장, (지역기록문화)콘텐츠체험관, 체육실, 실기실, 기록영상관, (지역)문화실연극장 |
| | | 지역 연계 | 지역 고용정보 등 행정서비스 병행, 향토자료 제공, 지역생활정보서비스, 주민회합실 제공, 지역 행사 개최 | • [B]시민모임방(주민회합실), 시민도서관, 지역향토정보실, 지역문화관, 지역행정정보센터, 지역고용센터, 지역생활정보서비스실 |
| | 네트워크 | 연관 기관 | 연관 기관과의 연계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이용 편의 제공(각종 요금 D/C 등) | • 연관기관홍보실, 연관기관홍보대 등 |
| | | 이용편의 | 이용편의제공 | 이용편의시설 제공 |
| | 이용자 세분화 | 세분화된 이용자 요구 부응 | 장애인, 어린이, 여성, 지역민, VIP 등 세분화된 이용자 공간서비스 제공 | • VIP 전용실, 유아화장실, 수유실, 장애인 검색대, 장애인 주차장, 기타 특수 이용자시설 및 장비, 어르신 정보실, 여성휴게실(지역민은 위의 [B]와 상동) |
| | 영리사업 | 영리사업운영 | 편의점, 기념품점, 서점, 카페테리아, 식당 | • 기념품점, 서점, 식당, 숙박시설, 편의점, 카페테리아, 라키비움 관련 물품 판매소 |



〈그림 3〉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핵심 공간 요건과 라키비움 확장서비스 공간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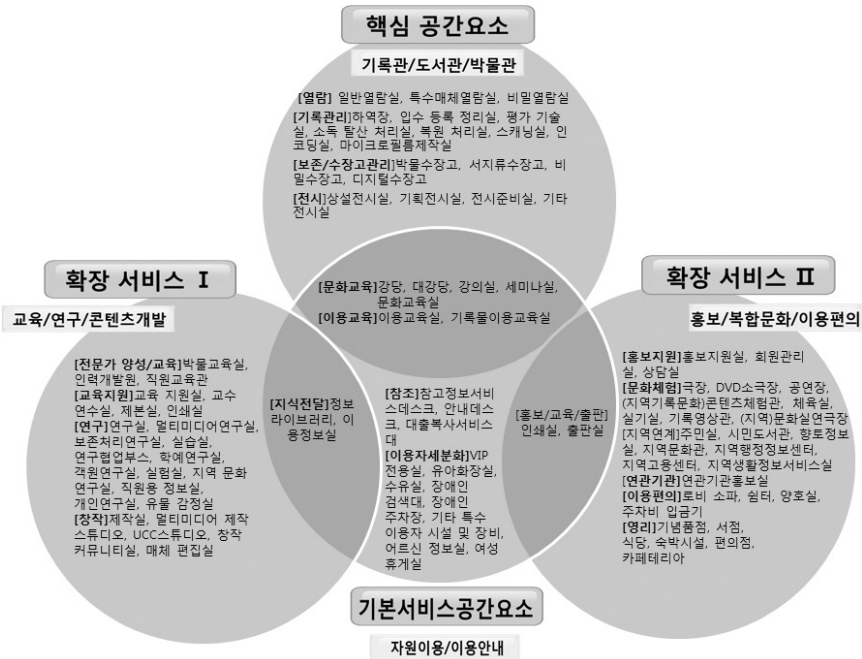
움이 정보도서관 중심의 역할을 지향한다면 이 가운데 도서관의 핵심 공간 요건과 확장 공간 요건을 중심으로 라키비움의 공간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핵심적인 업무 기능을 수렴하는 공간 요건과 라키비움의 확장서비스 I, II의 공간 요건을 추출하였으면, 다음으로 이 요건을 수용하는 공간 요소를 구상한다. 이를 위해서는 3.1.1.2 단계에서 분석한 라키비움의 핵심적인 업무 기능을 위한 공간 요소로, 도서관의 열람, 기록관의 기록관리 및 보존,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핵심 공간 요소를 추출한다. 이어 3.1.5 단계의 라키비움 서비스 공간 요소로, 확장서비스 I의 교육 연구 콘텐츠 개발과 확장서비스 II의 홍보 문화 편의에 대한 공간 요소,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 공간 요소를 유기적으로 화합하여 총괄한다(〈그림 4〉 참조). 이 가운데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역할과 자원 객체의 유형에 적합한 공간 요소를 추출하여 공간

계획의 기반 자료로 활용한다.

3.2 정량 분석

정량 분석은 라키비움 면적 산출을 위한 기준을 파악하여 설계 계획에 참고하는 활동이다. 또한 정량 분석은 라키비움 리모델링의 필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적 지표로 유효하므로 전체 라키비움 기획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를 가진다. 이 단계에서는 라키비움의 전체 공간 면적 산출을 위해 '목표 자원 매체와 양', '업무 관리를 위한 소요 공간', '이용자 문화·교육의 소요 공간' 등을 기준으로 전체 라키비움에 필요한 소요 면적을 산출한다. 하나의 라키비움 현황 분석에 이 세 가지의 분석틀을 모두 사용하여 전체 면적을 평균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주요한 변수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참고할 수도 있다. 라키비움의 공간 면적을 산출할 때에는 예산 현황과 부지 매매가 등이 주요 변수이나 본



〈그림 4〉 라키비움의 업무기능 및 서비스 공간 요소 총괄

연구의 범위에서는 견적사의 경제적 산출은 제외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제시하는 라키비움의 공간 면적 산출의 도식은 견적사의 정량 분석과 함께 차후 설계에 필요한 정보 인자이므로 라키비움의 공간안 개발에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3.2.1 ‘목표 자원 매체와 양에 의한 면적 산출 리모델링 대상 라키비움이 기록관이나 박물관처럼 소관 자원의 공간 영향력이 크다면, 자원 객체의 매체별 양에 의한 면적 산출을 전체 면적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록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할 때에는 소관 기록물의 향후 15년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자원 증점량을 예측하여 전체 면적을 산출해왔는데(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8), 최근 몇 년 사

이 국내에서 진행된 기록학계의 연구에서는 20년 이상을 바라보며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8; 국립국악원, 2010; 국회도서관, 2010).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라키비움이 소관하고 있는 현재 자원의 양을 매체별로 분석하고 향후 20년까지 목표하는 자원의 양을 예측하여 필요 면적을 산정한다. 기록학계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한 공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서고 면적 근거에 따른 면적 산출 도식이다.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장고의 시설 및 면적 기준은 <표 5>와 같다.

상기 산출 공식은 박물관 수장고의 소요 공간 예측은 제외되었다. 박물관 수장고의 면적이 확정되면 이는 전체 면적 산출에 대입되어 필요 면적량은 증가한다. 향후 20년까지의 자원의 증

〈표 5〉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와 기준에 따른 수장고 규모 기준

| 구분 | | | 종이자원 | 전자자원 | 시청각자원 | 행정박물 |
|--------|--------|-----|-------------------|------------|---|----------------|
| 보존 수장고 | 수장고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 | 1십만 장당 80㎡ | 오디오 1만 개당 30㎡ 비디오 1만 개당 68㎡ 사진필름앨범 1만권당 236㎡ 영화필름 1천켄당 30㎡ |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
| |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 내외 | | | |

※ 출처: 공공기록물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별표 6]

점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라키비움의 현재 소장 자원 파악과 함께 수집 정책을 교차 분석하여 적용한다. 수장고의 면적을 산정한 후에는 보존 공간의 구성비를 정하여 전체 라키비움의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보존 공간의 라키비움 전체 면적구성비는 기록관과 도서관 관련 〈표 6〉의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상기 기준을 참고하면 기록관의 일반적인 보존공간 면적비중은 20~70%로 기관 유형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40%의 비중을 권장하고 있다. 라키비움 보존공간의 면적 구성비는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유형과 역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한다. 리모델링 대상 라키비움이 정보도서관의 성향이 강하다면 보존영역보다 이용영역 등에 비중을 더 둘 수 있고,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이라면 면적비중을 약 30% 내외를 차지하도록 산정할 수 있다.

공간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면 보존 대안공간의 위탁과 점진적 공간 증축 및 유사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보존 공간 확보 등의 대안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

3.2.2 '업무 소요 공간'에 의한 면적 산출

이 단계는 라키비움의 필요인력에 따른 규모를 산정하는 활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물리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조직 인력이 요구하는 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구성대비로 전체 면적을 산정한다. 인력이 차지하는 공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법률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근무 인원 1명당 7㎡의 면적을 요구하므로 근무 공간은 이에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

〈표 6〉 문화유산기관의 수장고 면적 구성 비율 기준의 예시

| 출처 | 보존공간(수장고)의 면적 구성 비율 |
|----------------------------|--|
|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 - 기록관의 보존공간의 비율은 25~30% - 미국의 경우 보존공간의 공간비율이 20~35% |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 건축물 중 서고의 일반적 면적비율은 40~70% - 서고 면적비율은 추진기관에서 필요공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나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는 전문시설로서 서고의 면적비율은 40% 이상 |
| 도서관 설립·운영전략매뉴얼 | - 공공도서관은 자료공간(보존공간)이 40% |

나 라키비움의 성향에 따라 조직의 업무가 달라지고 조직 계급 간 업무 공간 산정 방식도 상이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라키비움의 업무 소요 공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키비움 조직안 설계는 수직적 방향이 아닌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절차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업무 공간 면적 산출에 적용할 때에는 직렬별 소요 인력을 파악하여 수직적으로 대입할 필요가 있다. 근무 인원의 직렬별로 소요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라키비움 원장과 임원 등 개별 실을 요구하는 공간을 먼저 별도 추산한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8). 예컨대 관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서관장의 소요 면적인 25~30㎡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직원 1인당 공간 면적 규모는 8~10㎡를 적용할 수 있다. <표 7>은 문화

유산기관의 1인당 업무 면적으로 책정된 지침 기준들로, 직렬별 업무 면적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근무 인원의 업무 공간의 소요 면적을 산출하였으면 이를 토대로 전체 면적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의 사무 공간 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4~5%의 기준을 가지며, 도서관은 지역중심관 8~13%, 대분관 2~8%의 구성비를 가진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기준을 참고하여 라키비움 성향에 따라 업무공간에 따른 전체 면적을 도출한다.

3.2.3 ‘이용자 문화·교육의 소요 공간’에 의한 면적 산출

라키비움의 이용자 활용 서비스를 위한 공간 면적을 산정하는 것도 라키비움 정량 분석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화와 교육 서비스의 이

<표 7> 라키비움 1인당 단위별 공간 면적에 적용할 수 있는 면적 기준

| 출처 | 업무부문 | 1인당 필요면적 |
|----------------|------------------------------------|---------------------|
| 도서관 설립·운영전략매뉴얼 | 도서관장 | 25~30m ² |
| | 직원 | 8~10m ² |
| | 정리실 | 15m ² |
| | 탈의실 | 1m ² |
| | 회의실 | 2.5m ² |
| | 휴게실 | 1m ²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무인원 1명당 업무공간 |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 장관급, 기관장실 | 165m ² |
| | 장관급 위원실, 차관급 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 99m ² |
| | 차관급 위원실, 차관보급1급(청의 차장실, 기관장실) | 66m ² |
| | 차관보급 1급(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 50m ² |
| | 차관보급 위원실, 2·3급 국장실, 담당관실 | 33m ² |
| | 2·3급 기관장실 | 50m ² |
| | 2·3급 위원, 3급과장실, 4급 국장, 과장 | 17m ² |
| | 4급 기관장실 | 33m ² |
| | 5급 과장, 기관장실 | 17m ² |
| | 6급 이하 과장 | 10m ² |
| |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이하 일반직원 | 7m ² |
| | 기관장 | 17m ² |

〈표 8〉 문화교육부문의 단위별 공간 면적

| 공간구분 | 단위별 공간(1석당 면적) | | 면적(m ² /석) | |
|---------|----------------|------------------|-----------------------|-------------|
| 문화교육부문 | 시청각실 및 강당 | 시청 및 관람만일 경우 | | 0.63 |
| | | 무대·영상장소 포함 | 50~60명 정도 | 1.2 |
| | | | 100~120명 정도 | 1.1 |
| | | | 150명 이상 정도 | 1 |
| | 집회 및 세미나실 | | 30명 이상 | 1.5 |
| | 전시공간 | 국제도서관 연맹 기준 | | 공중용 공간의 10% |
| | | 우리나라 현행 법적 기준 | 대규모 도서관 | 60~70 |
| 중규모 도서관 | | | 40~50 | |
| 소규모 도서관 | 20~30 | | | |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2008)

용자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대상 라키비움의 역할에 따라 이를 위한 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미리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단위별 면적 기준은 〈표 8〉과 같다.

상기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 부문의 단위별 공간 면적의 기준은 라키비움 리모델링의 이용자 문화교육 공간요소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화와 교육을 위한 이용자 공간을 계획할 때에는 실별로 상이하게 수립한다. 영화, 연극,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시청각실의 수용인원은 1백 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미나실은 도서강습회, 연구토론회, 각종 문화강좌 등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10~20명 안팎 수용 단위의 소규모 세미나실과 사회교육이나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위한 50~60명 수용 단위의 중규모 세미나실을 계획한다. 또 세미나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규모 세미나실(50명) 1~2실, 소규모 세미나실(20~30명) 1~2실을 갖추는 것이 적정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 기준들은 라키비움의 성향과 현황에 따라 변별적으로 수용한다.

3.3 종합 라키비움 리모델링을 위한 대상 기관 현황 분석 절차

이제까지 수립한 라키비움 리모델링을 위한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절차는 내용적으로는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뉘고 방법적으로는 ‘활동’과 ‘도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내용적 측면의 정성 분석에서는 라키비움 리모델링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관자원의 매체 종류와 설립 취지에 근거한 기본 인프라 분석 활동, 법적 시설 용도와 시설 및 장비 지침 수립을 위한 분석 활동, 서비스 기능 선정을 위한 지역문화 인프라와 서비스 인프라 분석 활동을 전개한다. 각각의 분석 도구로는 단계별로 관련 회의록, 법률 및 지침, 설문조사, 문헌 자료 등을 활용한다. 정량 분석에서는 라키비움의 전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목표자원의 매체별 양, 업무 소요 공간, 이용자 문화교육 소요 공간을 분석한다. 분석 도구로는 시설과 관련된 법률과 지침 및 문헌 자료를 활용한다. 라키비움 리모델링을 위한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절차를 ‘활동’과 ‘도구’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라키비움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활동과 분석 도구

| 단계 범주 | 세부 분석내용 및 분석도구 | 단계 범주 | 세부 분석내용 및 분석도구 |
|-------------------|--|--------------------------------|---|
| 1. 정성분석 | | | |
| 1.1. 기본 인프라 분석 | 1.1.1. 설립 취지 분석 ▶ 분석 활동 - 라키비움 설립 목적과 취지 분석 자료는 향후 전반 현황 분석 활동을 근간이자 기초 자료를 형성 ▶ 분석 도구 - 리모델링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주최한 리모델링 방안 회의록 조사 - 이밖에 리모델링 이전의 기관과 설립계획 라키비움의 사명안 및 정책 관련 자료를 교차분석하고 건립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진행하여 기초자료 구성 | |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과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및 매뉴얼 등 분석 |
| | 1.1.2. 역할 및 소관 자원 분석 ▶ 분석 활동 - 소관자원의 양과 매체별 구성비를 파악하고 주요 이용자 요구 및 지역문화 환경을 분석 - 이에 근거하여 라키비움이 지향해야 할 중점적인 역할 및 업무기능 공간 요소 분석 ▶ 분석 도구 - 설립취지분석에서 획득한 설립위원회 회의록과 라키비움 사명안 및 정책 관련 자료 재분석 - 소관자원목록 및 컬렉션 분석 | 1.4. 지역·문화 인프라 분석 | ▶ 분석 활동 - 문화적 이용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인프라와 주요 이용자 요구 분석 ▶ 분석 도구 - 지역주민 및 대표단체 대상 설문조사, 지역 정보자료 및 지자체 행정자료 분석 - 전문라키비움이라면 전문가단체 컨설터스 확보를 위한 설문 이행 및 분석 |
| | | 1.5. 서비스 인프라 분석 | ▶ 분석 활동 -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공간 요소 분석 ▶ 분석 도구 - 주요이용자 확장서비스 요구 설문조사 분석 - 문헌정보학계, 기록학계 등 관련 분야의 이용자서비스 연구 및 확장서비스 공간 관련 연구·문헌 분석 |
| | | 정성분석 총괄: 공간요건 설정 | ▶ 분석 활동 - 앞서 이행한 자료들을 토대로 라키비움 현황에 적합한 공간요건 설정 ▶ 분석 도구 - 앞 단계 분석 결과물 및 이행 단계별 메타자료 |
| 2. 정량분석 | | | |
| 1.2. 법적 용도의 분석 | ▶ 분석 활동 - 리모델링 라키비움의 주요 역할과 소관자원의 매체 및 설립취지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시설용도와 건축 계획적 요건범규 분석 ▶ 분석 도구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 법적 시설용도 분석 - 상기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건축계획 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분석 | 2.1. 목표자원 매체와 양에 의한 면적 산정 | ▶ 분석 활동 - 매체별 고관 자원의 양에 근거한 수장고 수요면적 산출 및 전체 면적 산출 ▶ 분석 도구 - 소관자원 목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별표 6, 수장고면적구성비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분석(본문 참조) |
| | | 2.2. 업무 소요 공간에 의한 면적 산정 | ▶ 분석 활동 - 업무기능 필요면적 기준 전체 면적 산출 ▶ 분석 도구 - 인력면적기준 각종 기준 분석(본문 참조) |
| 1.3. 시설환경 및 지침 분석 | ▶ 분석 활동 - 라키비움의 입지와 건축조건 등 물리적 환경에 강제되는 규정과 시설장비 지침 및 법률 분석을 통해 차후 환경기준과 법적 규정 및 내부 지침 수립의 근거자료 마련 ▶ 분석 도구 - 국제표준 ISO11799, 국내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기준, 건축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국내의 지침과 법규 분석 | 2.3. 이용자 문화·교육 소요 공간에 의한 면적 산정 | ▶ 분석 활동 - 라키비움의 문화교육서비스의 소요공간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면적 산출 ▶ 분석 도구 -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교육공간 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연구 자료 분석 |

4. 결론

과거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각기 전문적인 기능을 수렴하여 한정된 정보객체의 수집과 접근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컸다면, 현대에 와서 이들 문화유산기관의 공간 의미는 이용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정보의 소통과 교류의 증진 및 지식의 교환이 강조되면서 도서관의 중심공간은 열람에서 커뮤니티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고(한희정, 김용, 2010), 기록관과 박물관의 주요 공간 또한 기록물과 박물관 보존 및 전시에 머물렀던 것에서 문화교육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이용 친화적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융합의 환경에서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책무로 요구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소연, 2012). 이러한 현상에는 현대 문화유산기관의 이용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기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이행해온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기관들이 기관 간 통합이나 협력의 방향으로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는 추이에도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는 고객우선주의가 깔려 있다. 아울러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상충된 문제에도 문화유산기관의 융합은 효율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에 미국에서 제시된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통합형 수집·서비스 기관의 유형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국내 정보학계에서는 라키비움의 기능과 공간을 기획하는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라키비움은 실제 구현된 기관은 아니기에 이와 관련된 법제와 지침 등이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적 환경 요건을 적용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을 라키비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는 활동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도구로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강제되는 법률과 지침 등 제도적 기준과 관련 문헌을 폭넓게 조사하여, 리모델링 대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방법적으로는 기 수행된 라키비움의 공간기획에 관한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실행 단계로 발전시켜,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활동을 정밀화하고 국내에서 라키비움 공간 재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기존의 라키비움 공간기획이 가진 이론적 한계를 넘어,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현실에 대입한 라키비움의 구축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또한 실존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문헌과 매뉴얼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에 실증적인 분석 결과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은 실제 라키비움의 공간 리모델링과 기능 재설계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받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실재하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한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적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과 관련된 법제와 지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라키비움 리모델링을 위한 분석 연구이다. 국내에서 일부 연구들이 라키비움에 대한 기능과 공간에 대한 기획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국내 문화유산기관과 관련된 법제와 지침에 대한 적용 분석 연구가 진행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이 라키비움과 같은 복합적인 문화정보시설로 리모델링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요건을 기획단계에서 선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지방 박물관이 시설은 난립되는 반면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록관은 시설이 부족하며 도서관은 기능 한계에 봉착한 국내 문화유산기관의 난점에 대해 문화유산기관들의 기능과 공간을 통합·재설계하기 위한 분석틀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굳이 라키비움이 아니라도 각각의 문화유산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기능을 확장하거나 통합하는 데 필요한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활동과 분석 도구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문화유산기관에서의 적용

이 선별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라키비움은 국내에서 모두 직접적인 제도 지침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적 시설 정의에 있어서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유사 기관의 시설 정의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기관의 시설 정의 또한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법적 용도의 모호함과 제도적 한계는 본 연구 검토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라키비움 구현에 유의해야 할 법적 현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현안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학계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도서관과 기록관 혹은 박물관 등 기존의 문화유산기관들이 기관 간 기능과 자원을 교차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법제 마련은 향후 무엇보다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진 연구의 첫 시도로, 이후 관련 학계에서 문화유산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능 융합과 통합의 기반이 되어야 할 법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건축법 (법률 제11763호).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8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국가기록원 (201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서울: 국가기록원.

- 국립국악원 (2010). 국악아카이브 구축 전략 수립 연구. 서울: 국립국악원.
- 국립예술자료원 (2010). 예술자료관리 전문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98호).
- 국회도서관 (2010). 의정활동 관련 기록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서울: 국회도서관.
- 기후과학연구원 (2010). 한반도 기상역사기록 발굴연구회. 서울: (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 김기태 (2008. 8. 10). '일단 짓고보자'... 콘텐츠없는 박물관 난립. 한겨레신문.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03371.html>
- 김유승 (2012a).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국회 라키비움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97-116.
- 김유승 (2012b).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대한 연구: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93-115.
- 도서관법 (법률 제11310호).
-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3호).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0). 라이브러리파크 공간구성 및 전시개념설계: 아시아문화정보원 상세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도서관 설립·운영전략 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1a).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1b). 국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0367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9호).
- 박신의 (2009). 한국의 박물관 건립 현황 분석에 따른 박물관 건립 계획(Museum Planning)의 필요성. 문화정책논총, 22, 151-172.
- 병무청 (2010). 병무행정기록전시관 스토리보드 연구. 서울: 병무청.
- 신숙영 (2001).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서의 '프로그래밍'의 이론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윤병화 (2012). 학예사를 위한 박물관학. 과주: 예문사.
- 윤희운 (2008).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
- 이소연 (2012). 함께 만드는 미래: 디지털 융합과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정보관리학회지, 29(3), 235-256.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235>
- 장지혜 (2009). 한국의 박물관 건립 과정 실태와 개선방안: 뮤지엄 플래닝 적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장혜란, 이명희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

- 회지, 25(3), 321-338.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3.321>
- 전홍필 (2005). 公共圖書館 建築프로그램의 構成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전홍필 (2009). 아카이브의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 조정임 (2011).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 최영실 (2012a).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2), 53-80.
- 최영실 (2012b).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 통계청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40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8). 친일반민족관련 사료관 건립과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 (2009). 도서관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행정학회 (2007). 국가기록박물관 건립방안. 서울: 한국행정학회.
- 한희정, 김용 (201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공공도서관 공간설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193-217.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4.193>
- 행정안전부 (2007).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서울: 행정안전부.
- Ambrose, T., & Paine, C. (1993). Museum basics. 이보아 역 (2001). 실무자를 위한 박물관 경영 핸드북. 서울: 학고재.
- Lord, G. D., & Lord, B. L. (2001). Manual of museum planning (2nd ed.). Lanham: AltaMira Press.
-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3). ISO 11799-Document storage requirements for archives and library materials.
- Kuzyk, R. (2008, July 30). LJ talks to Megan Winget, who studies preservation of online games. Library Journal, Retrieved from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582968.html>
- Marty, P. F. (2009). An introduction to digital convergence: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information age.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295-298.
- NARA (2007). Architecture and design standard for presidential libraries - Supplement to NARA 1571.

- Rayward, W. B. (1998).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In Higgs (Ed.), *History and electronic artefacts* (pp. 207-226). Oxford: Clarendon Press.
- Yarrow, A., Clubb, B., & Draper, J-L. (2008).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rends i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FLA Headquarters,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08.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files/assets/public-libraries/publications/prof-report-108/108-en.pdf>
- Zorich, D. M., Waibel, G., & Erway, R. (2008). *Beyond the silos of the LAMs: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OCLC Programs and Research, Dublin, Ohio: OCLC Research.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content/dam/research/publications/library/2008/2008-05.pdf>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mbrose, Timothy, & Paine, Crispin (2001). *Museum basics*. (Lee, Bo A, Trans.). Seoul: Hakgojae.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Chang, Hye-Rhan, & Lee, Myoung-Hee (2008). Developing a public services framework for the region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321-338.
- Choi, Young Sil (2012a). A study on the spatial function in larchiveum based on the multi-function of archives, library and museum.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12(2), 53-80.
- Choi, Young Sil (2012b). *Research on larchiveum spatial planning : Based on functional convers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vies &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
- Choi, Young Sil, & Rieh, Hae-young (2012).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7-477.
-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568).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53).
- Enforcement Decree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3759).
-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425).
- Enforcement Rule of the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Service Act (Ordinance of the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o 1).
- Han, Hee-Jung, & Kim, Yong (2010). A study on space design of a public library in ubiquitous lif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193-217.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4.193>
- Hub City of Asian Cultur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Spatial configuration and display concept design of library park: A detailed business process of cultural centre of asian culture. Seoul: Hub City of Asian Cultur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Jang, Ji-Hye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useum planning proces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Hong-Phil (2005). The study on the compositive systems of public library's architectural programm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 Ik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Hong-Phil (2009). A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for archives facility corresponding to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 Ik University. Seoul, Korea.
- Jo, Jung Im (2011). Establishment and records management of popular music arch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Shi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i-Tae (2008, 8, 10). 'Let's build museum'... Increasing museums without contents in mess. The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03371.html>
- Kim, You-Seung (2012a). A study on collaborative strategies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Focused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2012 Collaborative Conference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12, May. Seoul: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Kim, You-Seung (2012b).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93-115.
- Korean Academy of Meteorology and Climate (2010). A research on korean meteorology history. Seoul: Korean Academy of Meteorology and Climate.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Handbook of general studies in libra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Standard criteria for korean library. Seoul: Korean Library

- Association.
- Lee, So-Yeon (2012). The future we make togethe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235-256.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235>
- Libraries Act (Act No 11310).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010). A research on development of story board of a military administration record exhibition hall. Seou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Manual of library building & management.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1a). 2011 a comprehensive survey of cultural infrastructure.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1b). A research on public museum management.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07). A research on building & management strategies presidential archives. Seoul: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Act No 10367).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1).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ecords center and special records center. Seoul: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0). 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combination of records management planning of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 National Gugak Center (2010).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of gugak archives. Seoul: National Gugak Center.
-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ct No 11798).
- Park, Shin-Eui (2009). The application of 'museum planning' through analysis of the museum construction process in Korea.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2, 151-172.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 11690).
- Shin, Suk Young (2001). 'Programming', theory and practice on museum planning proj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Statistics Korea of Meaum / Art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40
-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7). A research on building strategies of

- national records museum. Seoul: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The Korea National Archives of the Arts (2010). A research on specialization in art records management. Seoul: The Korea National Archives of the Arts.
-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2008). A research on building and management of Pro-Japanese Records Center. Seoul: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 Yoon, Byung-Hwa (2012). Museology for curators. Paju: Yemoonsa.
- Yoon, Hee-Yoon (2008). University library management. Seoul: Taeilsa.

